Case Report

J Sasang Constitut Med 2023;35(4):105-115
https://doi.org/10.7730/JSCM.2023.35.4.105

갈근해기탕과 한의치료로 호전된 대상포진 환자 치험 1례

노우현[1] · 이규영[2] · 유준상[3,4,*]

[1]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수련의, [2]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
[3]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교수, [4]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 소장

Abstract

A Case Report of Herpes Zoster Patient with Post-herpetic Neuralgia Improved by Galgunhaegui-tang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Woohyeon Noh[1] · Kyou-Young Lee[2] · Jun-Sang Yu[3,4,*]

[1] *Dept. of Neuropsychiatry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 *Dept.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3]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4]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Post-herpetic neuralgia(PHN) is one of the common complications in patients diagnosed with herpes zoster.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 of Galgunhaegui-tang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post-herpetic neuralgia patient.

Methods

A 62-year-old Herpes Zoster patient suffered from rash with post-herpectic neuralgia was identified as Taeeumin Gansuyolriyolbyong. The patient's chief complaint was assessed by counting the number of oral analgesics taken and using Visual Analog Scale(VAS) score.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Galgunhaegui-tang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Results

After 9 days of admission treatment including Galgunhaegui-tang, VAS of PHN was decreased from 7.5 to 4 and the number of taking oral analgesic was decreased from 2 to 1.

Conclusions

This case study indicates that Galgunhaegui-tang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may improve the pain of PHN.

Key Words : *Herpes Zoster, Post-herpetic neuralgia, Galgunhaegui-tang, Taeeumin, Korean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ceived 11, December 2023 **Revised** 11, December 2023 **Accepted** 22, December 2023
Corresponding author: Jun-Sang Yu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80 Sangjidae-gil, Wonju-si, Gangwon-do, 26338. Korea
Tel:+82-33-741-9203, Fax:+82-33-741-9141, E-mail:hiruok@sangji.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ww.kci.go.kr

Ⅰ. 緖論

대상포진(Herpes Zoster, HZ)이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Herpes Zoster Virus, HZV)에 최초로 감염된 이후 뇌척수신경절(Craniospinal Sensory Neuron)에 잠복해 있다가, 다양한 원인으로 재활성화(reactivation)되어 피부분절을 따라 홍반성 발진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이다[1]. 대상포진은 치료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2]. PHN은 나이가 들수록 발현도와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 환자의 90% 이상에서 이질통증(allodynia)이 나타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PHN의 초기 치료로 가바펜티노이드(Gabapentinoid)나 삼환계 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가 권고되고 있다[5]. 하지만 PHN이 발생하는 명확한 기전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6], 통증이 대부분 만성적이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 시 환자 증상의 심각도와 통증 부위, 동반 질환 및 약물 부작용의 과거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 치료하여야 한다[7]. 이러한 특성 때문에 PHN은 만성 난치성 통증 증후군 중의 하나로,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한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띠 모양의 발진 양상을 바탕으로 纏腰火丹, 蛇串瘡, 甑帶瘡 등으로 불러왔으며[8], 발생 원인을 肝火, 濕熱, 氣滯血瘀, 脾虛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 있다[9]. 대상포진을 일으킨 발생 원인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양한 침, 약침, 뜸, 부항, 한약 및 외용제 등의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천 등[10]의 봉독약침을 병행한 한방치료로 60세 이상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호전례, 김 등[11]의 자락발관법을 병행한 한방치료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치험례, 최 등[12]의 肝氣鬱滯로 변증한 스트레스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치험례 등 다양한 보고가 있어 왔다.

四象醫學에서는 대상포진을 태음인과 소양인의 陽毒發斑 등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13], 김 등[13]의 태음인으로 판단한 熱多寒少湯을 이용한 대상포진 환자 치험례 등의 보고가 있어 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포진에 대한 기존의 證治醫學的 연구는 다소 많이 발표된 반면 四象醫學적 측면에서 치험례를 발표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며, 더 많은 증례보고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葛根解肌湯을 병행한 한의치료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에게 유의미한 호전 결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證例

1. 환자 : 신OO (M/62)

2. 활력징후 : 혈압 138/91㎜Hg. 맥박 65회/min

3. 주소증

우측 흉부 T5-T6 피부분절(dermatome)을 따라 띠로 이어지는 발진이 있으며, 발진 부위로 열감과 통증이 있음[VAS 7-8]. 타이레놀을 복용하여도 별다른 호전이 없으며, 밤에 자는 동안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不眠을 호소함.

4. 발병일 : 2023년 8월 14일

5. 치료 기간 : 2023년 9월 15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6. 과거력 : 2003년 충수돌기염으로 충수돌기 절제수술 받은 바 있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3가지 모두 10년 전 진단받아 양약 복용 중.

www.kci.go.kr

7. 가족력 : 아버지와 형제가 고혈압 진단받은 바 있음.

8. 현병력

2023년 08월 14일경 해외 출장 중 우측 흉부, 배부로 당일에 통증이 먼저 발생하였고, 2023년 08월 22일 발진이 나타나서 2023년 08월 23일 귀국하여 인천공항 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대상포진이라고 진단 받은 뒤 2023년 08월 24일, 2023년 08월 28일, 2023년 09월 08일 총 3회 ○○의료원 방문하여 대상포진을 진단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기로 하여 약 2주간 항바이러스제, 연고제 처방을 받아 복용 및 도포 하였다. 이후 상기 통증 지속되어 적극적인 한방치료 받기 위하여 본원 사상체질과 외래 경유하여 자력보행 상태로 본원 사상체질과에 입원하였다.

9. 검사결과

1) Blood Chemistry

- Glucose 211㎎/dl (참고치 : 70~110)
- BUN 29.8㎎/dl (참고치 : 8~20)
- Creatinine 0.89㎎/dl (참고치 : 0.8~1.3)

이미 당뇨병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로 고혈당이 나타났으나 추적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BUN이 높았으나 Creatinine은 높지 않고 정상범위였으며, 7일 정도만 입원하고 퇴원하신다 하여 3개월 뒤 추적검사 필요성을 설명받고 퇴원하심.

2) Complete Blood Count

- 정상범위

3) Urinalysis

- 정상범위

10. 체질소견

1) 體形氣像

167㎝, 70㎏으로 BMI 25.1㎏/㎡의 살찐 체형의 남성으로 어깨와 흉곽이 좁고 복부가 발달하였다. 앙와위시 흉곽이 높고 복각은 둔각이다.

2) 容貌詞氣

얼굴이 둥글고 색이 붉은 편이다. 교양 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말소리가 높은 편이다.

3) 性質材幹

성격이 급하고 일처리를 할 때 분주한 편이다.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낯선 곳을 싫어하고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예민한 편이며, 평소 과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4) 素症

(1) **睡眠** : 평소에는 잘 자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1~2개월간 통증으로 인한 입면장애로 6시간 정도 뒤척이면서 수면을 취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2) **食慾 및 消化** : 평소 식욕 양호하고 식사량이 많으며 소화도 잘 되는 편이다.

(3) **大便** : 평소 1회/일로 무른 변을 본다. 발병 이후에 1회/3-4일로 시작은 딱딱하다가 점차 설사처럼 풀어지는 양상의 便秘가 있다.

(4) **小便** : 평소 7-8회/일로 양호하다.

(5) **口渴 飮水** : 특징적인 口渴은 없으나 하루 1000㎖ 정도의 물을 마신다.

(6) **汗** : 땀은 거의 나지 않는 편이고,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

(7) **舌** : 舌紅苔黃

www.kci.go.kr

⑻ 寒熱 : 몸에 熱이 많은 편이다. 발병 이후에 열감이 더 심해졌다.

⑼ 脈 : 沈

5) 체질진단

상기 환자 체형기상과 용모사기 및 성질재간을 고려하였을 때, 1차적으로 태음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KS-15 결과상 태음인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태음인으로 판단하였다.

11. 환자동의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의무기록 열람과 논문작성에 대해서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SJIRB-Human-23-005).

Ⅲ. 治療 및 經過

1. 평가방법

환자의 통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증 시각사상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매일 아침 7시에 시행하였다. 더불어 하루에 복용한 경구 진통제 개수를 기록하였다.

2. 치료방법

1) 한약치료

전반적인 통증과 발진 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葛根解肌湯 120cc (갈근 4g, 시호 4g, 황금 4g, 적작약 4g, 강활 4g, 석고 4g, 승마 4g, 백지 4g, 길경 4g, 감초 2g, 자초 8g)을 9일간 2첩을 3포로 나누어 매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Table 1).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환자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였기에 입원한 날을 제외한 8일간 아침 공복에 공진단 한 알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입원 당일에는 저녁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퇴원 이후 葛根解肌湯 2첩을 3포로 나누어 15일치를 처방하였으며, 환자의 기력 향상을 위하여 공진단 6알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2) 침구치료

입원 기간 9일 동안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총 하루 2회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침은 에스엠씨에서 제작한 스테인리스 호침을 사용하였으며, 직경 0.25㎜ 길이 30㎜를 이용하였다. 오전에는 스테인리스 호침으로 대장정격(족삼리, 곡지 보-양계, 양곡 사)을 이용하여 0-20㎜의 깊이로 자입 및 양 내관혈에 레이저침을 이용하여 15분간 유침하였다. 오후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압통점을 찾아 같은 위치의 배수혈에 0-20㎜의 깊이로 자입하여 3㎐로 환자가 적절한 전기 자극이 느껴질 만큼의 강도(약 3-4정도)로 15분간 전침을 시행하였다.

3) 약침치료

입원기간 9일 동안 매일 1회 오전에 약침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처를 찾아 10곳의 부위에 황련해독약침(기린한의원 부설 원외탕전원 제조) 총 1cc를 0.1cc씩 총 10회에 나누어 주입하였다.

4) 외용제

2023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5일간 외용한약처방(자초 20g, 판남근 10g, 포공영 10g, 황련 10g)을 거즈에 묻혀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하루 총 2회 환부에 wet dressing으로 20분간 도포하였다(Table 2). 또한 2023년 9월 15, 16, 18, 22일에는 안이비인후피부과에 협진 의뢰하여 황련 증류액 냉습포를 시행하였다. 방법은 황련(Coptidis Rhizoma) 300g에 정제수 약 9000㎖를 가하여 증류추출기(수냉 냉각 순환식 추출기 DM-1000, 대한메디안)에서 4시간가량 추출하여 3600㎖의 추출액을 얻은 후 120cc씩 30봉으로 포장하

www.kci.go.kr

여 냉장보관 하였다. 이를 하루 한 번씩 거즈에 묻혀 환부에 wet dressing으로 15분간 도포하였다. 또한, 입원 당일부터 통증이 있는 부위에 수시로 치염고(황련 8.5g, 황백 5g, 황금 5g, 치자 5g, 고삼 2.5g, 감초 2.5g, 빙편 2g, 박하뇌 2g, 황납 12g, 오일 100㎖)를 면봉에 묻혀 발라주었다(Table 3).

5) 치료경과 사진

Figure 1. Herpes zoster photos according to treatment response during hospitalization

www.kci.go.kr

Table 1. Composition of Galgunhaegui-tang

Herb	Scientific Name	Dose(g)
葛根	*Peurariae Radix*	4
柴胡	*Bupleuri Radix*	4
黃芩	*Scutellariae Radix*	4
(赤)芍藥	*Paeonia lactiflora*	4
羌活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4
石膏	*Gypsum Fibrosum*	4
升麻	*Cimicifugae Rhizoma*	4
白芷	*Angelicae dahuricae Radix*	4
桔梗	*Platycodi Radix*	4
甘草	*Glycyrrhizae Radix*	4
紫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	8
Total Amount		48

Table 2. Composition of Prescription for External Use

Herb	Scientific Name	Dose(g)
紫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	20
板藍根	*Isatis tinctoria*	10
浦公英	*Taraxacum platycarpum*	10
黃連	*Coptidis Rhizoma*	10
Total Amount		50

Table 3. Composition of Chiyeom-go

Herb	Scientific Name	Dose(g)
黃連	*Coptidis Rhizoma*	8.5
黃柏	*Phellodendri Cortex*	5
黃芩	*Scutellariae Radix*	5
梔子	*Gardeniae Fructus*	5
苦蔘	*Sophorae Radix*	2.5
甘草	*Glycyrrhizae Radix*	2.5
氷片	*Borneolum Syntheticum*	2
薄荷(腦)	*Menthae Herba*	2
黃蠟	Bees wax	12
Olive oil		100
Total Amount		144.5

3. 치료경과

1) 2023년 9월 15일

외래 치료 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콕콕 쑤시는 양상의 통증과 주관적 열감으로 인한 불편감 VAS 7-8로 호소하였다. 이에 통증 호소 10곳의 부위에 황련해독약침 1cc를 0.1cc씩 나누어 주입 및 팩을 실시하였다. 침 치료로는 대장정격 및 양 내관혈에 레이저침을 15분간 유침하였다. 이후 환자의 불편감 VAS 5로 감소하였으며, 유침 시 호흡하면서 대상포진 부위에 콕콕 쑤시는 양상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입원 당일 저녁부터 葛根解肌湯을 2첩을 3포로 나누어 1포씩 매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2) 2023년 9월 16일

우측 흉부 T5-T6 dermatome을 따라 발진이 나타났으며, 신경통으로 인한 통증 VAS 6으로 호소하였다. 전일 치료 전에 비해 흉부쪽, 옆구리 및 배부의 통증이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표현하였다. 경구 진통제는 취침 전에 1알,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으로 1회 기상하여 1알 총 2알 복용하였다.

3) 2023년 9월 17일

전일 통증으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표현하였다. 경구 진통제는 자기 전 1회, 잠을 자는 도중에 2회 기상하여 1알씩 총 3알 복용하였다.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 VAS7로 호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일보다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표현하였다.

4) 2023년 9월 18일 19일

전반적인 통증 전일에 비하여 많이 가라앉았으며, 콕콕 찌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 VAS 5로 호소하였다. 경구 진통제는 자기 직전 1알 복용하였으며, 잠을 자는 도중에 깨지 않아 복용하지 않았다.

www.kci.go.kr

5) 2023년 9월 20일

밤에 콕콕 쑤시는 양상의 통증보다 근육이 당기는 양상의 통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편감 VAS 4-5로 호소하였다. 입원한 이후 처음으로 경구 진통제를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통증으로 1회 기상하였지만 팩을 실시한 이후 잘 잤다고 진술하였다.

6) 2023년 9월 21일

따끔한 양상의 통증 VAS 4로 호소하였으며, 자각적인 열감도 많이 줄어들어서 경구 진통제는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았다.

7) 2023년 9월 22일

통증이 다시 악화되어 힘줄이 당기는 양상의 통증 VAS 5로 호소하였다. 경구 진통제는 자기 직전에는 복용하지 않지 않았으나, 이후 2회 기상하여 1알씩 총 2알 복용하였다.

8) 2023년 9월 23일

통증이 전일보다 소폭 완화되었으며, 콕콕 쑤시는 양상의 통증 VAS 4로 호소하였다. 전일 통증으로 기상하여 잠을 잘 자기 위해 자기 직전에 경구 진통제 1알을 복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으로 2회 기상하였으나 냉찜질을 한 이후 잘 잤다고 진술하였다.

IV. 考察 및 結論

대상포진은 최초 감염 이후 척수신경절에 오랜 기간 숨어 있다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생체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어 피부분절을 따라 홍반성 발진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1]. 급성 신경통의 경우 발진이 생기기 1-3일 전에 나타나며, 환자들은 주로 "불타는 듯한", "콕콕 쑤시는 듯한" 등과 같은 양상의 통증을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다[14]. 발진은 급성 신경통이 발생하고 난 뒤 1-3일 후 생기는데, 피부분절을 따라 소수포들이 군집되어 나타나다가 3-4일 이후에 농포로 변하면서 가피가 형성되고, 이내 탈락하면서 감염성을 잃게 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15].

대상포진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낳을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PHN이다. PHN은 피부병변이 호전된 이후에도, 혹은 병변이 발생한 지 3~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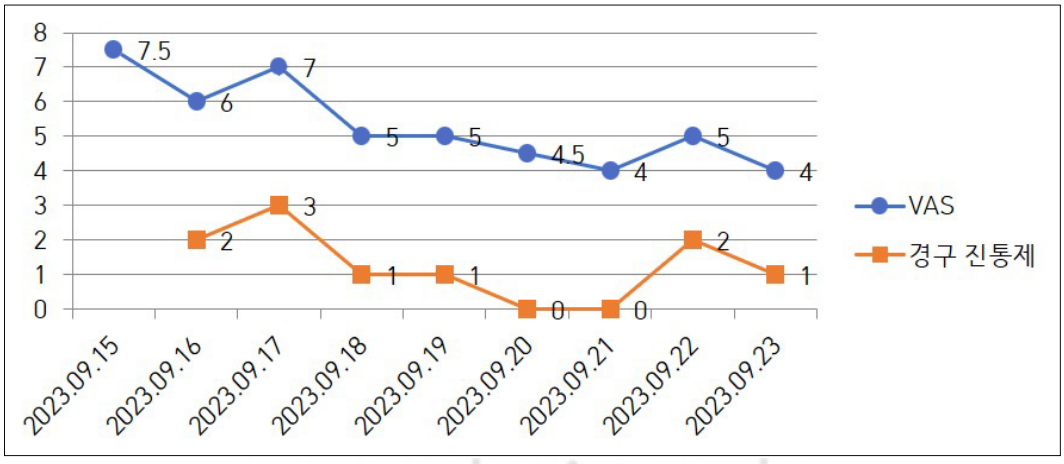

Figure 2. VAS and the number of oral *analgesics* taken during hospitalization

www.kci.go.kr

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환자의 8~15%에서 발생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60세 이상 환자에서는 12~15%에서 PHN이 생긴다. 대부분 1년 내에 소실되나 일부에서는 수년 이상 지속된다[16]. 초기 치료로 삼환계 항우울제나 가바펜티노이드(Gabapentinoid)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5], 아직 명확한 치료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1].

한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 띠 모양의 발진 양상을 바탕으로 纏腰火丹, 甑帶瘡 등으로 불러왔다[8].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을 크게 肝火, 濕熱, 氣滯血瘀, 脾虛 등으로 나누어서 보았다[9]. 현대에 알려진 바로 대상포진이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및 다른 질환으로의 감염 등으로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각각 肝火, 氣滯血瘀, 脾虛 및 濕熱로 분류할 수 있다. 吳[17]는 肝心의 火로 인한 것은 龍膽瀉肝湯을 사용하고, 脾肺의 濕熱로 인한 것은 除濕胃湯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18] 등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 국내 현황에서 십전대보탕, 그리고 용담사간탕과 소시호탕 순으로 빈용되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대상포진을 太陰人과 少陽人의 陽毒發斑의 범주로 보았다[13].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는 熱多寒少의 病으로 간주하여 陽毒發斑의 치험례를 기술하였고[1], 치방으로 少陽人 陽毒發斑은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서는 陽毒白虎湯을 제시하고 있으며, 태음인 陽毒發斑은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2]에서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제시하고 있다[19].

본 례의 환자는 167㎝, 70㎏로 BMI 25.1㎏/㎡ 남성으로 어깨와 흉곽이 좁으면서 복부가 발달한 형태의 체형을 지녔다. 얼굴이 둥글면서 붉은 색을 띄고 있으며, 인자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하며, 평소 식사량이 많으면서 소화도 잘 된다는 점 등의 素症을 고려하였을 때, 1차적으로 太陰人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KS-15 검사 결과 太陰人으로 나와 최종적으로 태음인으로 판단하였다.

太陰人의 병증에서, 胃脘受寒表寒病과 肝受熱裏熱病의 구분은 몸의 열감(身熱)과 땀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20]. 상기 환자는 비록 평소에 땀은 없으나 땀을 내고 난 이후에 시원한 느낌을 가지며 평소에 자각적인 열감을 호소한다는 점, 口渴은 없으나 하루 1,000㎖ 정도의 음수량이 있으면서 面色이 붉다는 특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肝受熱裏熱病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징적으로 대상포진 진단 이후 수면의 질이 나빠졌으며, 변비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身熱, 不得臥, 大便秘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肝熱病重證으로 체질병증진단하였다[20].

상기의 병증에서 태음인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에서는 葛根解肌湯을 제시하고 있으며[21], 太陰人 肝受熱裏熱病의 陽毒發斑에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이용할 수 있다[19]. 본 환자의 경우 평소 수면은 양호하였으나 대상포진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수면의 질이 나빠졌으며, 무른 변에서 변비 경향을 띈다는 점 그리고 精神昏厥 등의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黑奴丸에 비해 葛根解肌湯이 보다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과 후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았을 때, 발병 이후에 열감이 더욱 심해졌으며, 평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최근 불면으로 더욱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淸熱의 효능이 있는 석고, 和解의 작용을 하는 시호, 表寒과 風濕을 제거하는 강활이 들어간 공신의 갈근해기탕이 태음인 갈근해기

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9-42 其後 又有少陽人 一人 得傷寒 熱多寒少之病 有人 敎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余 敎服白虎湯 連三貼而 其人 只服半貼…前後用石膏 凡十四兩而 末境 發狂數日 語譫宏壯而 病愈 數月然後 方出門庭.

2)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13-1 朱肱曰 陽毒 面赤斑 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 及 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尙煖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13-3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13-4 三陽病深 變爲陽毒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六脈洪大 宜黑奴丸. 13-5 論曰 右諸證 當用 葛根解肌湯 黑奴丸.

www.kci.go.kr

탕보다 적합한 처방으로 보았다. 葛根解肌湯에 紫草를 가미하였는데, 자초는 甘寒質潤하며 血分에 들어가 凉血, 解毒, 透疹 및 滑腸시키는 효과가 있어 뚜렷한 열감에 더불어 변비를 호소하고 있었기에 자초를 가미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본 가미방을 복용한 이후에, 비록 무른 변이기는 하나 입원기간 중 규칙적인 대변을 보았으며, 후중감이나 설사 등의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초기에 통증과 열감은 가슴, 등, 옆구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입원 마지막 날 문진시 옆구리 통증은 없으며 등과 가슴 부위의 통증 정도와 부위가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열감도 흉부와 옆구리의 발진 부위에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환자는 특이적으로 입면장애를 호소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 통증으로 간혹 깨기는 하였으나 통증 때문에 입면을 방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좋아졌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또한 입원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과 함께 입원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에 배제된 상황인 만큼, 본 방이 실질적으로 수면의 질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침 치료로는 大腸正格을 이용하였다. 火를 瀉하여 濕熱을 다스리면서 土를 補하여 피부 재생을 돕기 위하여 위경과 대장경의 土穴인 曲池와 足三里를 補하고, 소장경과 대장경의 火穴인 陽谷과 陽谿를 瀉하는 대장정격을 선택하였다.

레이저침으로 양 內關穴을 이용하였는데, 內關穴은 인체의 내부를 관문한다는 뜻을 가진 만큼,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반응에 대한 안정 효능이 있음[22]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의 수면을 개선하고 불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약침으로는 황련해독약침을 이용하였다. 황련해독탕은 황금, 황련, 황백, 치자로 구성된 처방으로 淸熱解毒의 효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 황련해독약침은 다용되는 처방 중 하나이며[9], 홍[23] 등의 연구에서 황련해독약침을 이용하여 열성피부병이나 肝心肺의 火를 瀉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등 열성 질환을 다스리는 데에 탁월하다. 본 증례 환자의 경우 입원 전환한 당일에 황련해독약침을 맞고 난 이후 환자의 통증 정도가 VAS 8에서 VAS 5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압통처에 국소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도 통증 경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용제는 치염고와 황련 증류액, 고유처방을 이용하였다. 치염고는 황련 8.5g, 황백 5g, 황금 5g, 치자 5g, 고삼 2.5g, 감초 2.5g, 빙편 2g, 박하뇌 2g, 황납 12g, 오일 100㎖로 만들어진 처방으로, 황금 황련 황백 치자로 황련해독탕을 기본방으로 하고 있다. 황련해독탕은 염증 효과가 뛰어나며[24], 發散風熱의 효능을 지닌 박하뇌와 淸熱燥濕하면서 피부장벽의 강화와 염증완화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苦參[25] 등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고유 처방으로 자초, 판남근, 포공영, 황련을 합방하여 마른 거즈에 묻혀 wet dressing을 실시하였다. 각각 淸熱凉血(자초), 淸熱解毒(판남근), 淸血解毒(포공영), 淸熱燥濕(황련)으로 熱을 끄면서 解毒에 초점을 맞춘 처방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열감 및 신경통을 줄여주면서 발진 부위가 입원시에 비하여 비교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경구 진통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양방 의학적 치료 개입 없이 오로지 한의학적 치료만으로 증상 호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 여러 가지 개입이 들어가 어떠한 치료가 주효하게 작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四象醫學的 관점에서의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근거가 쌓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www.kci.go.kr

Ⅴ. Reference

1. Sim WS, Choi JH, Han KR, Kim YC. Treatment of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Korean J Pain. 2008;21(2):93-105. (Korean) DOI:10.3344/kjp.2008.21.2.93
2. Kim YJ. Clinical Observation of Postherpetic Neuralgia in Patients with Herpes Zoster. Korean J Dermatology. 2001;39(12):1364-9. (Korean)
3. Ragozzino MW, Melton LJ 3rd, Kurland LT, Chu CP, Perry HO. Population-based study of herpes zoster and its sequelae. Medicine (Baltimore) 1982; 61:310. DOI: 10.1097/00005792-198209000-00003
4. Bowsher D. Pathophysiology of postherpetic neuralgia: towards a rational treatment. Neurology 1995;45:S56. DOI: 10.1212/wnl.45.12_suppl_8.s56
5. Hempenstall K, Nurmikko TJ, Johnson RW, A'Hern RP, Rice AS. Analgesic therapy in postherpetic neuralgia: a quantitative systematic review. PLoS Med 2005; 2:e164. DOI: 10.1371/journal.pmed.0020164
6. Moon DE. Pharmacologic Treatment of Postherpetic Neuralgia. Korean J Pain. 2004;17(Suppl.):22-8. (Korean)
7. Johnson RW, Rice AS. Clinical practice. Postherpetic neuralgia. N Engl J Med 2014; 371:1526. DOI: 10.1056/NEJMcp1403062.
8. Kim SB, Kim JH, Lim KS. A Literature Study on Herpes Zoster.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1994;7(1):85-94. (Korean)
9. Cho YS, Sim SY. A Review on the Pharmacopuncture Used in Herpes Zoster 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1):113-22. (Korean)
10. Chun SC, Jee SY, Lee SK. Two Cases of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Improved by Oriental Medidne with Bee Venom Acupunctur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4;17(2):120-6. (Korean)
11. Kim TY, Kim JH, Kim CH. A Case Report of Post-herpetic Neuralgia Improved by Oriental Medicine with Depletion and Cupping Therap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2;25(3):160-167. (Korean)
12. Choi CH, Park SY, Ko KM, Hwang SY, Jee SY, Chung DK. Clinical Report of 2 Postherpetic Neuralgia Cases Diagnosed and Treated as Ganwoolqich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8;21(3):207-214. (Korean)
13. Kim ST, Choi AR, Koo DM. A Case Report of Herpes Zoster in Tae-eumin Improved with Yeoldahanso-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2):71-77. (Korean)
14. Johnson RW, Rice AS. Clinical practice. Postherpetic neuralgia. N Engl J Med 2014; 371:1526. DOI: 10.1056/NEJMcp1403062
15. An SG, Jang KH, Song JW, Chun SH. Common skin disease : Diagnosis and treatment. 2nd ed. Seoul: Dr's Book. 2009:264-7. (Korean)
16.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Seoul:Globooks. 2022:187. (Korean)
17. Wu Q.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 (Essential of External Methods) Vernacular interpretation.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82: 167-168. (Chinese)
18. Kim JH, Yoon HJ. Trends of Korean Treatment for Postherpetic Neuralgia: Analysis of Case Studies. J Korean Med Op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3:36(3):27-41. (Korean) DOI: 10.6114/jkood.2023.36.3.027

www.kci.go.kr

19. Song IB, Goh BH, Lee EJ, Kim KY, Kim DR, Park SS, et al.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ition. Seoul:Jipmoondang. 2004. (Korean)
20. Lee JH,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aeeumin and Tae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agnosis and Algorithm. J Sasang Constitut Med 2015;27(1):13-41. (Korean)
21. Jeon SH, Yu JS,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aeeum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iver Heat-based Interior Heat(Gansuyeolliyeeol) disease. J Sasang Constitut Med 2015;27(1):57-70. (Korean)
22. Kim H, Park HJ, Han SM, Hahm DH, Lee HJ, Kim KS, et al. The effects of acupuncture stimulation at PC6 (Neiguan) on chronic mild stress-induced biochemical and behavioral responses. Neurosci Lett. 2009 Aug 21;460(1):56-60. DOI: 10.1016/j.neulet.2009.05.008
23. Hong CH. Two cases of Seborrheic Dermatitis treated by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Therap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2;25(2):68-75. (Korean)
24. Yang HJ, Joo HA, Baek SC, Park JS, Hong SH.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wangnyeonhaedok-tang and Fermented Hwangnyeonhaedok-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1;24(2):1-15. (Korean)
25. Rho KB, Shin SW, Yoon SH, Weon JB, Oh SY, Kim JO, et al. Effect of Sophora flavescens Extract on Reinforcing Skin Barrier and Alleviating Inflammation. J. Soc. Cosmet. Sci. Korea 2020;46(4):361-369. (Korean) DOI: 10.15230/SCSK.2020.46.4.361

www.kci.go.kr